

인공지능사관학교 지원자 전국서 몰렸다

180명 모집에 1054명 지원...5.8대 1 높은 경쟁률 보여 서울 126명·경기 114명·부산 22명 지원... 'AI 대세' 확인 온라인 과정 거쳐 360명 선발시험 자격...7월1일 입교식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특화인재 양성을 목표로 7월 개교를 앞둔 인공지능사관학교에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180명 모집에 1045명이 지원해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524명이 지원해 50%를 차지한 가운데, 인접한 전남(92명), 전북(31명)은 물론 서울(126명), 경기(114명), 부산(22명) 등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공별로는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정보통신·전자·수학·통계 등 관련 분야가 38%를 차지하는 등 이공계열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영·경제·문화콘텐츠 등 인문계열 전공자도 많았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진행되는 인재 양성 교육에 이 같이 많은 지원자가 몰린 배경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는 막대한 호기심 단계를 넘어서 취업, 창업, 경력전환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계기로 비대면화·디지털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도 인공지능이 초래할 새로운 직업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감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출신 지원자들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수도권으로 가야하는 부담이 있어 망설였었다"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광주에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중심 산

업융합 집적단지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기대도 표실했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현재 지난달 21일 시작된 온라인 기본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17일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은 매주 목요일 오전 주차별 강의를 공개하고, 앞 단계 강의를 수강한 후 문제까지 맞추어야 다음 단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과제물까지 제출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기본과정이 끝나면 모집인원의 2배수인 360명에게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시험 내용은 온라인 기본과정에서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시험은 정보통신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머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 특히 응시생의 실물과 시험에 응하는 컴퓨터 화면을 동시에 감독하는 온라인 시험감독 서비스를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종선발 결과는 24일 발표되며, 지원 동기(10%), 온라인 기본과정 수행평가(20%), 선발시험(70%)을 종합해 선정

한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들은 6월 말까지 입교등록을 마치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현장강의를 받는다. 입교식은 7월 1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출신이 선발인원의 최소 절반은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출신 기준으로는 ▲광주 소재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광주소재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경우도 포함) ▲광주 소재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5월 1일 현재 광주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며, 그 기간이 계속해 6개월 이상 또는 합산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용섭 시장은 "다른 지역에서 많은 역량있는 젊은이들이 광주로 몰려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그만큼 인공지능산업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면서 "광주가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길 융합인재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주)매일방송(MBN) 장승준 대표이사와 '광주시-매일방송(MBN)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MBN,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함께 이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해 민간데이터거래소 다방면 상생 추진 인공지능 산업육성 위한 정책연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협력

광주광역시시는 (주)매일방송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1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일방송이 주관해 출범시킨 'KDX한국데이터거래소' 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광주광역시시는 2일 이용섭 시장과 (주)매일방송 장승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일방송은 종합편성채널 MBN을 운영하는 국내 유수의 미디어 기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유통·소비분야 주관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국내 1호 민간 데이터 거래소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일방송은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과 연계해 빅

데이터 정책과 기술발전을 포함한 데이터 제공·공유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매일방송이 주관한 유통·소비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와 민간데이터거래소의 데이터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광주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KDX한국데이터거래소를 포함한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의 상호 협력 ▲빅데이터 정책과 기술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인공지능 기반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다.

장승준 매일방송 대표이사는 "이번 광주시와 매일방송의 업무협약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나아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이끌 것이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2개 신규 지정

해남 방춘·진도 소앵무리 마을

전라남도는 유기농업을 이끈 '해남 방춘마을'과 진도 소앵무리마을 등 2개 마을을 올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경지면적 20ha, 구성원 20호 이상의 규모로 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50%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경지면적의 20% 이상으로 구성원의 친환경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2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해남 방춘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67ha로 경지면적(82ha) 대비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이 82%(유기농 52%) 이상이다. 단지·규모·화면 농지에 보리와 밀, 양배추, 밤호박 등 비 이의 품목에 대해 다양하게 인증을 취득했다. 인근에 방춘서원과 흑석산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진도 소앵무리마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74ha로 경지면적(94ha) 대비 유기농인증 면적

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심이 강한 마을로 소문난 지역이다.

특히 미스트롯 가수 송가인의 출신 마을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등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2개 마을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고 내년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개소당 5억 원) 신청 자격을 부여해, 유기농업 확대·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업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꾸준히 찾아 유기농 생태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다"며 "유기농 생태마을을 친환경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모델로 이끌어 유기농업을 퍼트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기농업의 확산·정책과 친환경 농촌관광 명소화를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해 왔으며, 총 31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관리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협업하여 도내 830개교, 19만명 모든 학생 가정에 1인당 4만원 상당 '남도장터' 온라인 상품구매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도교육청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

1인당 4만원 상당 '남도장터' 온라인 포인트 지급

전남도과 전남도교육청이 협업하여 도내 830개교, 19만명 모든 학생 가정에 1인당 4만원 상당 '남도장터' 온라인 상품 구매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과 전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집행하지 못한 3-4월분 무상 급식비 예산 76억원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의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물 상품 구매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2차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방식과 달리, 학부모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직접 필요한 식재료를 선택해 구매하도록 했다. 지원 품목도 농산물 꾸러미를 비롯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됐다.

남도장터 상품구매 포인트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남도장터'에서 농수축산물 꾸러미로 구입할 수 있고, 이미 입점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중에서도 선택할 수도 있다. /윤규진 기자

광주시 "6월에는 폭염·호우 주의하세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광주광역시시는 올 여름 이상고온 현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6월 중점관리 할 재난 안전사고로 폭염, 호우(장마), 물놀이, 전기감전 등 4개 유형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매년 차이는 있지만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6월 평균기온은 평년(24.7℃)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무더위에 대비하여 지난 20일부터 오는 9

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한다. 더불어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한다.

또 현재 광주 전역에 운영하고 있는 우산형 그늘막 쉼터 335개를 비롯해 기상 상황에 따라 자치구에 보유한 살수 차량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광산구 임곡교(황룡강) 주변 등 4곳을 물놀이 가능 구역으로 정해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한다. /박은진 기자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24시간온도관리시스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